



Ajou

방관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김성주, MD¹, 신윤미, MD, PhD^{1,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¹,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²

Objective

최근 국내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 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집단 폭행 등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국내 학교 폭력 발생률은 8-12%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대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예단 (2010-2012) 조사에 따르면 최초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하며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¹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예방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호전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학교폭력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적 구도가 아닌, 학교폭력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제 3의 요인인 방관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효과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관자들은 괴롭힘 행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가해자들을 격려하거나 침묵, 묵인하면서 학교폭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다수의 방관자들의 태도 변화 등은 괴롭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가해/피해-가해자의 정신병리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방관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Methods

본 연구에서는 2015년 7월 충청남도 공주 소재 1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관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학교폭력의 특징, 방관자 역할과 공감의 중요성, 공감/비공감에 대한 이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의 개념 및 특징, 폭력의 종류, 입장 별 차이에 대한 이해, 학교 폭력 역할 유형 중 방관자 역할의 중요성과 또래 관계에서의 공감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또래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감적, 비공감적 표현에 대해 영상을 통해 시각화하였고, 공감적 언어 및 행동으로 학교 폭력을 바라보며 보다 친사회적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진정한 학교 폭력 예방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인식과 태도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정보, 학교폭력 가해/피해 실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², 주변인행동척도³, 청소년자가행동평가척도(K-YSR)⁴, 정서지능측정도구(SUEIT)⁵ 등이 포함된 설문지를 프로그램 실시 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받은 후 일부 척도를 재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이하 SPSS) 21.0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및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류, 바이스탠더 그룹 분류는 빈도 및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피해자 중 가해자 비율 비교, 학교 폭력 그룹별 바이스탠더 분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점수, 바이스탠더 그룹의 정서지능 점수 사전 사후 비교에는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학교 폭력 그룹별 K-YSR 평균값 비교에는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방향 p<0.05로 규정하였다.

Results

Table 1.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류표 (total N=209)

	가해자		합계
	예	아니오	
피해자	예	13	15
	아니오	4	194
합계	6	203	209

Table 1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7.2%, 가해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조사되었고 상호간 연관성을 보였다. 해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피해 학생 / 가해 학생은 8.5%/4.1%로 보고되었고, 2015년에는 0.9%/0.4%로 점차 낮게 보고되고 있다.

Table 2. 학교폭력 그룹별 바이스탠더 분류 †

	피해자=0 가해자=0	피해자=0 가해자=x	피해자=x 가해자=0	피해자=x 가해자=x	계
가해자	0	0	0	2	2
보조자	0	0	0	1	1
강화자	0	1	0	2	3
보호자	1	5	1	61	68
방관자	1	7	3	124	135
계	2	13	4	190	209

†: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P=0.961

Table 2에서 총 209명의 인원 중 가해자가 2명으로 1%, 보조자가 1명으로 0.5%, 강화자가 3명으로 1.4%, 보호자가 68명으로 32.5%, 방관자가 135명으로 64.6%를 차지하였다. 가해자, 보조자, 강화자의 비율보다는 보호자와 방관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특히 방관자의 비율이 6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자 여부와 피해자 여부에 따른 그룹을 기준으로 바이스탠더 그룹의 통계를 나타내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여부와 피해자 여부에 따른 그룹과 바이스탠더 그룹간의 연관 관계는 카이제곱검정 p값 0.9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학교 폭력 그룹별 K-YSR 평균값 비교 ††

	피해자=0 가해자=0	피해자=0 가해자=x	피해자=x 가해자=0	피해자=x 가해자=x	ANOVA p값
위축	4.50	3.92	3.25	2.50	0.153
신체증상	3.50	3.46	2.00	2.62	0.724
우울불안	9.50	12.08	5.25	6.43	0.011*
미성숙	3.00	4.23	2.25	2.42	0.083
사고문제	2.50	3.38	3.25	1.57	0.000***
주의집중	8.00	6.92	5.00	4.90	0.179
비행	3.00	2.69	2.75	1.56	0.034
공격성	10.50	8.85	10.75	6.57	0.073
자해	2.50	7.69	3.00	3.64	0.003**
내재화	16.50	18.77	10.25	11.24	0.044*
외현화	13.50	11.54	13.50	8.14	0.029*
총점	49.50	52.38	40.25	32.13	0.005**

††: one way ANOVA were conducted. ***: P<0.001, **: P<0.01, *: P<0.05.

Table 3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여부에 따라 총 4그룹으로 나누어 그룹간 K-YSR 증후군별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우울불안, 사고문제, 비행문제, 자해문제 증후군에 대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해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 그룹이 통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스탠더 그룹간에는 K-YSR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4. 바이스탠더 그룹별 정서지능 점수값 비교 ††

	가해자	보조자	강화자	보호자	방관자	ANOVA p값
감정인지와 표현	32.50	38.00	29.67	34.44	32.73	0.300
감정이해	61.50	64.00	64.00	69.38	64.97	0.035*
감정 직접인지	30.00	32.00	34.00	32.78	32.11	0.771
감정관리와 통제	59.00	65.00	60.67	62.94	59.58	0.331
총점	183.00	199.00	188.33	199.42	189.39	0.080

††: one way ANOVA were conducted. *: P<0.05.

Table 4에서 바이스탠더 그룹간에는 감정 이해에서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보호자 그룹이 69.38로 높게 보고하였다. 학교폭력 그룹간에서는 감정관리와 통제점수에서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바이스탠더 그룹별 주변인 행동척도 프로그램 사전/사후 비교 †

	사전	사후	평균차	P-value
가해자	3.24	3.16	-0.07	0.342
보조자	3.32	3.36	0.04	0.656
강화자	3.68	3.53	-0.15	0.106
보호자	6.51	6.18	-0.33	0.029*
방관자	6.34	5.96	-0.37	0.006**

†: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 p<0.01, *: p<0.05

Table 5에서 총 4회기의 방관자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주변인 행동척도에서 보호자와 방관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학교 폭력에 대한 태도 점수는 사전 45.45에서 사후 44.08로 1.63 증가하였으며 p-value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Conclusion

한국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실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주로 퀴즈나 게임형식을 빌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학교 폭력 전문가가 미비한 실정인 프로그램의 회기를 줄여서 최소의 노력으로 교육자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 학교 폭력의 특징인 집단성을 고려할 때 학급 전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은 방관자 집단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현재 학교 폭력 참여자, 혹은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소수 있지만 학교 폭력의 수준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관자에 초점을 맞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아직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방관자들을 중심으로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4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전후로 자신에 대한 이해, 방관자 역할의 변화 등을 보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학생들은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친구들의 감정 상태를 공감해야겠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여 학생 집단 전체를 학교폭력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전체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관자 중심의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1.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13) 2012년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2. Salmivalli C et al.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1-15
3. Salmivalli C et al. (2014)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How can Peer Bystanders Be Utilized in Interventions? *Theory Into Practice*, 1-13
4. Oh, K, Hong, K, & Lee, H. (1997). Korean-Youth Self Report (K-YSR). Seoul, Korea: Jungang Aptitude Research Center
5. Luebbers, s. et al. (2007). The development of an adolescent measure of EI.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6), 999-1009